

삼보불교음악협회 창작 뮤지컬

‘오세암’ 무대에

엄마가 그리워 관세음보살을 엄마로 삼고 살아가는 다섯 살 세암이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관객들과 만난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창작 뮤지컬 ‘오세암’을 준비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월 16~17일 공연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삼보불교음악협회 소속 합창단의 전임 단장들이 모여 결성한 관음회 합창단의 창단공연이기도 하다.

100여명의 인원이 출연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장님이 된 감이와 철부지 세암이’ ‘마음의 문을 열고’ ‘관음암에 꽃비 내리고’의 3막으로 구성됐다.

해안 포구가 보이는 작은 마을, 감이네가 살고 있다. 앞 못 보는 첫째 감이를 두고, 둘째 세암이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는 병으로 죽었다. 세 가족이 힘겹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고 얼마마져 세상을 등진다. 감이와 세암이는 집도 없이 떠돌기 시작한다. 거

정부가 교수 지휘, 세암이役 최현진

16~1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

지표이 된 남매를 만난 설정 스님은 두 아이를 거두고, 마등령 고개턱에 있는 관음암에 개구쟁이 세암이와 함께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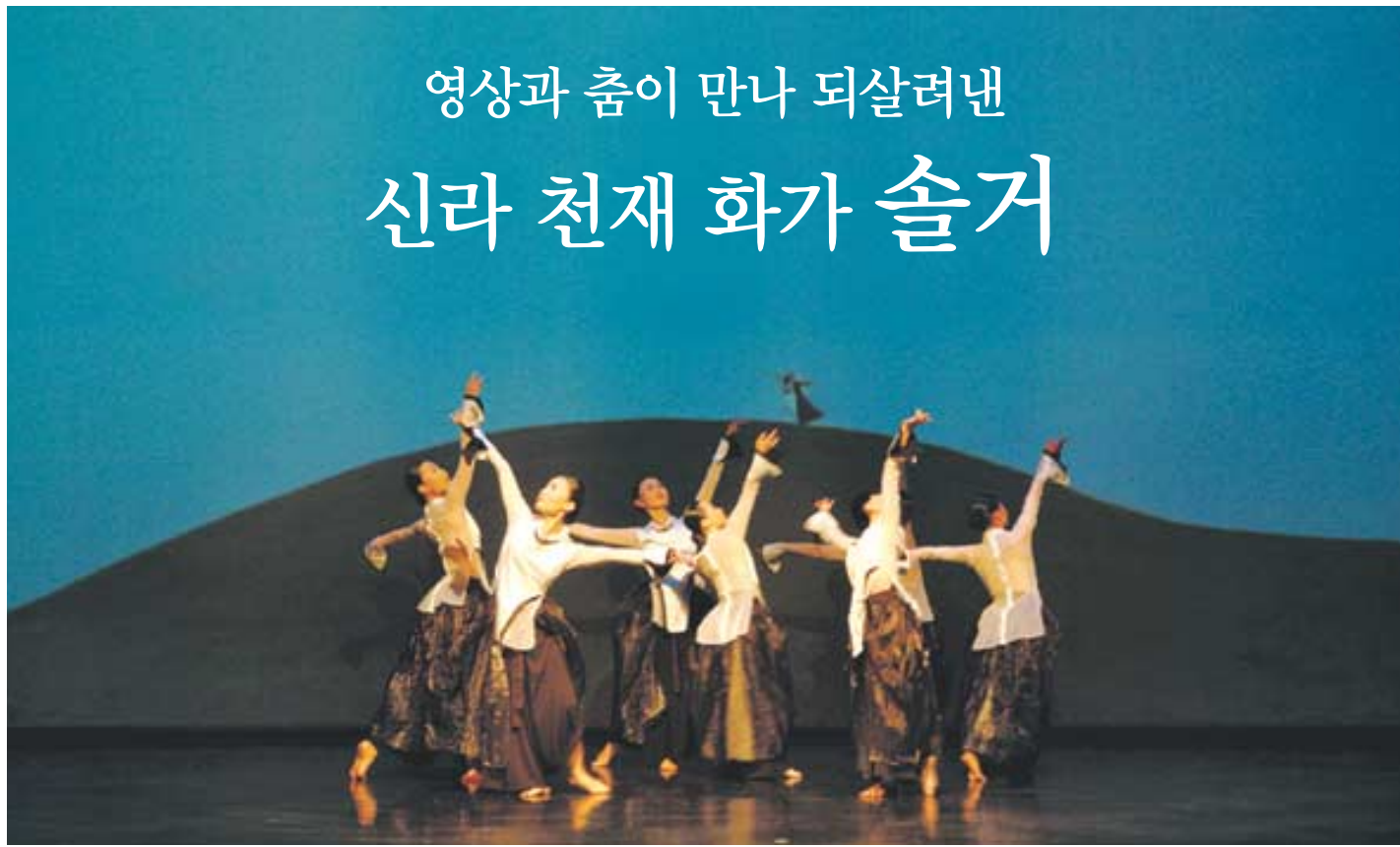
관음암에서 관세음보살 행화를 발견한 세암이, 세암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엄마다. 설정 스님이 먹거리리를 구하려 산 아래로 내려간 사이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고... 죽었으리라 생각한 세암이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부처가 된다.

마을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를 지내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주인공 감이 세암이 설정 스님 외에도 동네 사람들과 스님 및 공양주 보살, 신도들, 관음암 인근에 사는 토끼 다람쥐 너구리 노루 등 동물들 등의 다채로운 인물들이 출연한다.

정부가 교수(중앙대 작곡과)가 지휘를 맡고 이화자 회장(관음회 합창단)이 기획했다. 세암이 역은 최현진(중앙승가대 지휘)씨가 맡아 변성기 전 목소리를 연기한다. 소프라노 박정희(경희대 음대 출강)씨는 감이를, 바리톤 이경호씨는 설정 스님을, 테너 이준형씨는 주지스님을 맡아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창단한 바라오페라단이 초연한 작품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월 18일 오후 7시에 앙코르 공연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작품으로 선정돼 재공연하는 것이다. (02)723-0440

강지연 기자



영상과 춤이 만나 되살려낸 신라 천재 화가 솔거

키뷰 ‘솔거의 화첩 線善禪의 길’

불이 꺼지고 막이 오르자 무대 위 영상 속에 펼쳐진 백색 도화지에는 한 그루의 소나무 스케치가 완성된다. 순간 영상은 시공을 거슬러 어느 숲에 누운 ‘솔거’에게 집중된다.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진짜 소나무인줄 알고 앉았다는 황룡사의 벽화 ‘노송도(老松圖)’를 그린 신라 진흥왕 때의 화가 ‘솔거’. 그의 생애가 11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비디오 영상과 춤으로 되살아났다.

육정화 비디오&댄스 콤플렉스가 ‘솔거의 화첩 선(線)선(善)선(禪)의 길’을 비디오와 춤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영상예술로 무대에 올렸다.

신라 법흥왕 때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솔거. 그림을 좋아해 무엇을 보아도 세묘해 내는 그림의 신동이었던 그가 꿈속에서 단군으로부터 신필을 선사받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신필을 얻은 솔거가 꿈에서 본 단군화상을 1000여점 그려낸다. 선(禪)의 이미지로 새로운 세상을 그리려는 과정을 선(線)·선(善)·선(禪)의 길로 짜임새있게 묘사했다.

2막 선(線)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이 세상을 이루는 가운뎃신필을 얻은 솔거가 사랑과 그리움 희망과 절망을 아우르며 자신의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렸고, 3막 선(善)에서는 그림을 그리지만 다시 휴지가 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선행의 답을 찾으며 강한 의지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솔거를 표현했다. 그리고 마침내 솔거는 4막 선(禪)에서 술에 취한 듯 들뜬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황룡사의 노송도를 그려나간다. 솔거는 완성된 노송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완성을 깨닫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백현순 교수(한국체육대 생활무용학과)는 “솔거라는 예술가를 생각하며 線과 善, 그리고 또 하나의

눈에 보이는 사물 닮지는 대로

세묘해 내던 그림 신동이

線의 세계에서 禪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예술세계 추구했던

꿈과 강한 의지 형상화

禪을 묶어 마침내 완성에 다다른 경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며 “멀티미디어 시대에 춤을 낮설어하는 관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비트 있는 타악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고, 비디오영상이 무대를 산과 강·계곡으로 순간 이동시킨다. 비디오영상과 무용수들의 현란한 몸짓은 60분간 경산시민회관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공연은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비디오&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예술을 부각시켰다.

비디오&댄스란 무용이라는 공연예술이 갖는 한계 즉 제한되고 한정된 무대에서 제한된 관객에게만 보여준다는 불만을 초월하기위해 시도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무용’이다. 일종의 영화제작과 같은 작업처럼 보이지만 주제를 설명하지 않고 영상 이미지로 표현한다. 관객들 스스로 보고 느끼며 즐거움을 상상하게 해서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볼 수 있다.

연출과 촬영을 맡은 육정화 교수(영남외국어 대학 방송영상디자인과는 “지난 여름 시원한 솔밭을 기억하며 솔거라는 예술가의 화첩을 꺼내 보았다”며 “한 예술가의 삶을 단편적인 조각들로 표현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재현해 보



무대의 독무는 영상 속 무용수들과 어울려 환상의 군무로 변신한다.



자연과 무용수를 비추는 영상은 다양한 공간을 무대위에 연출한다.



솔거의 그림(線)이 점차 정신의 경지(禪)로 올라가는 모습을 무용수들이 표현한다.

고 싶었다”고 밝혔다. 육정화 교수는 제34회 한국영상제 최우수작품상과 제66회 UNICA국제영화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글·사진/경산=배지선 기자

문화재 보존처리

前 後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립대구박물관이 ‘문화재 보존처리’를 주제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문화재, 문화재 보존처리’전을 11월 7일 시작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 보존처리 전 후 사진과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을 전시한다.

과학적 분석 장비(XRF)를 이용한 금동유물의 성분 분석, 철제 유물의 엑스레이 내부 구조 조사, 목제유물의 수종 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유물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들은 금동 불상(사진), 철제 재갈, 목제 두레박 등이다. (053)768-6051~2 강지연 기자

‘불교미술 본然 문도전’

11월 23일~12월 3일 대구시민회관

불교 전문연호 문화생들이 결성한 본연문도회가 11월 23일~12월 3일 대구 시민회관 2 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연호 선생의 후학들이 ‘본연문도회’가 그동안의 작업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불화는 그림이기 이전에 종교’라는 사상에 충실해 따르고 있는 본연문도회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화와 전통문양, 현대미술을 조화롭게 엮어냈다.

불교미술대전 금상 수상경력 김성희씨등 16명의 문화생이 이번 전시회에 동참했다.

본연문도회는 ‘불화이야기’라는 이름의 화실을 열어 불화 보급에 나서고 있다. 다음 카페(cafe.daum.net/bulhwa)도 개설해 불화의 기초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011-526-1086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가죽만 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 **건강 슬리퍼** (지압형론 실리콘 폼) (침수복원단) (개인별보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 가격: 60,000원 ● 규격: 225-285mm ● 색상: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인)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정우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능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옹종,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황토 원적외선 좌훈기** (좌훈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100% 황토와 세라믹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여자들의 냉대하중, 오실금, 산후조리, 치질, 습진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취향에 따라 견식 및 한약재티백을 이용하여 습식으로도 가능하며 온도조절이 용이하여 내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 질 좋은 황토를 사용하였기에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되고 은은한 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우리의 선조는 황토흙 벽돌로 집을 짓고 생활 하였으며 현대도 찜질방, 황토굴 등 자연의 황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내부 용기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 좌훈은 혈액 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 약제 티백 공급합니다.

특히 **살균, 증원, 주입**

전 원	220V
규 격	380×380×420
소비전력	650W
중 량	12kg
식약청 제조허가 1687호	

**두영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43-17 TEL : 053)985-6939, 6940 FAX : 053)985-6930 HP : 011-810-3301